

## “산업적 효과보다 국민을 위한 정책에 최우선”



“현 상황은 일모도원(日暮途遠)이다.”



정보통신부 장관  
유영환

유영환 신임 정보통신부 장관은 올 하반기 통신규제 로드맵, 방송통신 융합, 그리고 요금인하에 이동통신 식별번호 이슈까지 할 일은 많은데 참여정부 시한은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며, 자신의 현 상황을 ‘날은 짧고 갈 길은 멀다’는 일모도원이란 사자성어에 비유했다.

유 장관은 6개월짜리 장관이란 말도 스스럼없이 말했다. 오히려 한정된 임기가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.

유 장관은 “업무의 중압감을 고려하면 이를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”며 “크게 눈치 보지 않고 업무수행을 할 수 있어 오히려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된다”고 말했다.

하지만 그는 바로, “서두르지 않고 참여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 하겠다”며 세 가지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했다.

우선, 국민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. 그리고 차선으로 산업적 효과를 고려할 것이고, 사업자 간 갈등요소는 이러한 두 가지 원칙을 갖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.

유 장관은 “통신사업자 간 갈등요소 해결을 위해 의견을 수렴할 경우 국민은 뒷전인 경우가 있었는데, 나의 임기 동안 그러한 일은 없을 것”이라고 못 박았다.

결국, 유 장관이 자신 있게 ‘6개월짜리 장관’이라고 스스

로 칭할 수 있었던 이유는 ‘국민을 위한 정책’과 ‘정책 일관성’을 소신 있게 지켜내겠다는 자신감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.

이는 유영환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LG텔레콤의 IMT-2000 1x EV-DO rA(리비전A) 식별번호 논란을 ‘010 번호통합정책’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며, 깔끔하게 마무리 지은 일에서 잘 나타난다.



유 장관은 “010 번호통합정책은 후발사업자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이에 대한 취지를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”며 “이는 매우 중요하고 이러한 근간을 깨트리는 일은 없을 것”이라고 리비전A에 010 통합번호를 적용하려는 이유를 밝혔다.

또, “이러한 원칙을 깨뜨려서는 시장의 균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원칙은 지킬 것”이라며 “LG텔레콤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그는 또 다른 이유로, 리비전A에 010 식별번호를 부여해도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.

유 장관은 “각 사업자들이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010 번호와 기존 번호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수신허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, 정통부에서도 올 초에 이 같은 정책을 취한 바 있다”며 리비전A에 010 식별번호를 부여해도 사업자 간 균형발전과 국민 편익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.

유영환 장관은 또 ‘국민을 위한 정책’ 추진의 일환으로 방송·통신 융합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.

유 장관은 “방송통신 융합은 국가 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국가적 과제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”이라며 “그동안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고 이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과 IPTV가 제도화돼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또, “최근 독일에서 열린 IFA 행사에서도 IPTV가 전시되는 등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방송통신 융합은 피할 수 없는 대세”라며 “IPTV 관련 세계 특허도 한국이 다수 점유하고 있는 등 산업적으로도 중요하고 글로벌 수요도 커, 제도화가 늦춰질 경우 산업적 측면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”고 덧붙였다.

유 장관은 특히 “IPTV 조기 법제화는 무엇보다 ‘국민의 선택권’을 넓히는 것”이라며 “국민의 미디어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빨리 허용돼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국민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유 장관의 의지가 향후 IT산업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. 